

여수 만흥지구 임대주택사업 갈등 고조

시의회·주민들 “사업 강행, LH와 협약 파기” 촉구
시 “협약 파기 행정신뢰 실추...법적 구속력 없어”

여수 만흥지구 공공지원 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두고 여수시, 시의회,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을 반대하는 시의회와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맺은 협약 파기’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수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반발하는 등 만흥지구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남 만흥지구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 파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표결 끝에 찬성 17, 반대 6, 기권 3으로 채택됐다.

강 의원은 “만흥지구는 여수의 미래관광을 이끌 새로운 관광지가 돼야 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은 곳은 안정적인 생활 터전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여수시는 주민이 반대하는 이 사업의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 “여수시는 국토부와 LH에 일부 사업구역 제척 요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지역 주민과 시의회, 시장의 제척 요구 등 지역 민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만흥지구 평촌·중촌마을 47만 4,000㎡에 3,500여세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만흥지구를 관광단지조 개발하려 했고, 타당성 용역조사 등을 거쳐 전남도로부터 사업 승

인까지 받았다.

사업은 2016년 12월 여수시가 민간사업자와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 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본격화하는 듯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예치금을 미납하며 협약이 해지됐다.

이후 여수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의회 승인을 받은 후 돌연 올해 5월 30일 LH와 만흥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관광단지 개발 추진 협의 중에 LH와 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민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만흥 검은모래해변 배후부지 개발사업 협약 해지 이후 여수시는 직접 공영개발을 통해 만흥지구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기로 했고, 시의회가 관련 예산까지 의결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LH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

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협약 이후에야 알게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임대주택단지 조성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수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를 주장을 반박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LH와 맺은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협약은 관련법에 따른 협약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LH와 협약 파기는 법적 다툼과 행정 신뢰 실추 등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는 사업에 반대하는 중촌마을 주민들에게 이미 공문으로 해당 지역을 사업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만일 LH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중촌마을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여수시는 사업 계획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순천시의회, 이영란 시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순천시의회가 전남 동부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영란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전남 동부지역은 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거리가 124km이상 떨어져 구급차를 이용하더라도 한 시간이 훨씬 넘게 소요되는 등 긴급의료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

이 의원은 “전남 동부권에는 전남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90여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연평균 10만명 이상의 심뇌혈관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 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이라며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순천시도 심근경색, 뇌



경색, 뇌출혈 등 중증급환자의 전 원 료 이 11.1%로 전국 평균 5.2%보다 훨씬 높은 실정 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진 료 등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사회적 안전 망 확보를 위해 순천시에 전남동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 총리,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 장, 보건복지부장관, 전남도지사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권동현 기자

제25회 순천시민의 날 1만여명 참여 큰 호응

제25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가 최근 시 승격 70주년을 맞는 의미를 더하며, 순천 시청 일대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순천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순천시의 중심인 시청일원에서 지난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개막식에 앞서, 순천시를 이루고 있는 24개 읍면동의 숨은 자원과 음식, 특산물, 인물, 역사 등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순천 소재 노래 경연대회와 천태만상 시민 장기 자랑대회에서 시민들의 솜씨를 마음껏 뽐냈다.

개막식에서는 순천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김계선선생이 시민의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최대규 재경순천향우회장이 2019 순천방문의 해를 적극 홍보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시 승격 70주년 퍼포먼스는 순천의 과



제25회 순천시민의 날 행사가 최근 시청 일대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순천시 제공

거 70년의 역사와 미래 청사진이 담긴 영상과 함께 7세의 어린이와 70세의 어르신 이 감사(사랑)글과 당부(희망)글을 각각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

한 ‘순천시민의 노래’는 음모토 38곡가운데 ‘함께 가는 순천’이 최종 선정됐으며 가사 등 편곡 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식행사와 함께 시청 주변에는 읍면동 대표 음식, 체험, 판매, 홍보부스 운영과

함께 길거리 공연, 시민자유발단대, 사회적 경제단체의 프리마켓, VR 체험존 등 난장블터, 순천의 최초·최고 전시전 등을 가미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더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석 기자

여수미술관 ‘여수 설화이야기’ 결과보고회전

여수미술관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여수 설화이야기-여수설화이야기에 그림을 입히는 설화그림책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과보고 전시는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으로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력,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가 후원하는 ‘여수 설화이야기’ 프로그램의 종료와 더불어 개최하는 전시이다.

여수미술관 여수 설화이야기 결과보고전은 지난 6개월 동안 15명의 여수시민과 지역 문화 해설사, 문화예술교육 강사와 함께 설화가 있는 섬 3곳인 금오도, 개도, 향일암을 답사한 뒤, 여수 섬 이야기를 담은 작품 50여점과 금오도, 개도, 향일암 등의 설화가 있는 지도 3점을 선보인다.

여수미술관 서봉희 관장은 “프로그램에 함께 고민해주고 열성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있어 만족스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나 제2차, 제3차 설화이야기 진행돼 이야기가 있는 도시 여수, 다시 오고 싶은 여수를 만



마녀목.

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수미술관이 진행한 ‘여수 설화이야기’ 프로그램은 지역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여수 섬의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것을 목적으로 금오도, 개도, 향일암을 답사해, 설화 그림책과 설화 지도를 만드는 총 13회 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진행했다.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제작된 설화 그림책과 설화 지도는 여수시청을 비롯해 여수 주요 관광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이를 통해 여수시민은 물론이고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도 여수의 설화이야기를 알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클릭! 고흥 속으



고흥 어른신 원에 체험활동

고흥군은 지난 14일부터 고흥 관내 노인요양 복지 시설의 12개소 140명의 어른신을 대상으로 원에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체험활동은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며,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른신들에게 원에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원에 치유 프로그램은 식물과 흙을

만지는 활동을 통해서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원에체험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원에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진준연 기자



순천대 정구부, 전국체육대회 역대 최고 성적

순천대학교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사회체육학과 소속 정구부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47개 종목에 3만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대회에 순천대 정구부는 사회체육학과 김재필 교수(감독)와 배상중 코치의 지도로 6명의 선수가 참가해 단체전 준우승과 개인전 복식 3위, 단식 3위를 차지하는 등 그동

안 참가한 전국체육대회 중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대회에서 개인전 복식 동메달과 단체전 은메달을 수상한 4학년 허민 선수는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이번 대회에서 소중한 메달을 획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감독님과 코치님의 열정적인 지도와 대학 구성원, 지역민들의 응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이주연 기자



곡성 치매안심마을 ‘힐링데이’ 나들이

곡성군은 치매가족 및 주민들과 함께 신안군 천사대교로 ‘치매안심마을 힐링데이’를 다녀왔다고 17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 힐링데이’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주민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곡성군은 이번 힐링데이 통해 주민들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목포 해상케이블카 체험과 암태도 동백 파마머리 벽화를 보고 인증샷을 찍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여행을 통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 졌다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곡성군은 지난 4월 석곡면 덕동리를 곡성군 치매안심마을 1호로 지정하고 치매 조기검진, 가족상담, 치매안심관리사 파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